

### 대한간호협회 2019년 사업계획

## 회원 고충상담 널스톡 운영 ... SNS 소통체계 활성화

대한간호협회는 제8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19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총회는 2월 19~20일 롯데호텔제주 크리스탈볼룸에서 전국의 간호사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9년 사업계획은 대한간호협회 제8차 장기사업계획(2017~2019년)에 근간을 두고 마련됐다.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정리한다.

#### ◇협회의 전문성 향상 및 조직체계 확립

산하단체 정책 추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간호사 임무 법제화 위원회를 운영한다. 신 회관 마련을 추진한다. 간호협회 중앙회와 지부 및 산하단체 회장 직무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간호정책 아카데미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대한간호협회 제9차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온라인 회원등록 시스템, 회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KNA연수원 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한다.

####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 강화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한다. 간호정

책 아카데미 개최를 지원하고, 간호사 정치참여 확대 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국회, 정부, 보건의료단체 등과의 정책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한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간호 관련 법률 개정 활동을 추진하고, 정부 법령 입법

한 연구사업을 간호관리료, 간호사 이직방지, 간호업무 표준, 커뮤니티케어, 실습교육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회원복지 확대 및 홍보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에 주력한다. 회원들

인터넷/모바일 간호신문을 운영한다.

◇회원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간호사 보수교육 질 관리에 주력하고,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를 강화한다. KNA에듀센터 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주력한다. 오프라인 보수교육 프로그

제집 및 모의고사, 간호사 보수교육 교재 등을 출판한다. 간호학 인터넷서점 'RNbook' 활성화에 주력한다.

◇건강한 간호조직문화 정립  
행복한 간호현장을 위한 존중간호리더십 프로그램,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통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힘쓴다. 통일시대 간호체계 관련 연구를 실시한다. 탈북민 건강 지원, 탈북 간호사 및 간호학생 지원 등 탈북민 지원체계 확립에 힘쓴다.

#### ◇한국 간호역사 정립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대한간호협회 100년사 발간 준비작업으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한국간호역사자료집' 제3권 발간 준비작업을 진행한다.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 개정판 발간을 추진한다. 간호역사 관련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계속한다.

제외한인간호사대회와 연계활동을 계속하고, 2019 제외한인간호사대회를 개최한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ICN Congress and CNR 2019에 참가한다.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 및 아시아간호연맹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다.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를 운영하고, 각국 위원회와 소통하고 교류한다.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활동을 주력한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제9차 장기사업계획 수립 간호정책 선포식 개최 간호수가 개선 활동 주력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대정부활동을 적극 펼친다. 상대가치 수가, 가정간호수가 등 간호 관련 수가 개선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제도 개선, 방문간호 활성화 등에 힘쓴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관련 활동,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한다. 간호정책 및 간호현안에 관

의 고충상담을 위한 통합콜센터 널스톡을 운영하고, 무료 법률 및 노무상담을 강화한다.

SNS 소통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온라인 'KNA 뉴스레터'를 제작 발송한다. 언론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간호사 이미지 향상 활동, 간호사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친다. 간호사신문을 매주 발간하고,

웹,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의료인 필수교육, 간호역량강화교육 등을 개발 운영한다. 실습교육 교수 역량강화를 위해 시뮬레이션랩 운영을 추진한다.

간호사 면허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간호사 국가시험 관련 연구를 추진한다. 전담간호사 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간호학 교과서 및 참고도서,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

헌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병원 및 지역사회 대상 조직문화 향상 캠페인을 전개한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점을 마련한다. 한국간호사 윤리 강령 개정을 검토한다.

◇통일시대 대비 간호체계 구축  
통일시대를 대비한 간호 관련 활동을 추진한다. 통일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 (1면서 계속)

특히 “지난해 11월에 열린 ‘2018 간호정책선포식’에는 역대 선포식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각 당 대표들까지 63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간호법은 바로 이러한 보건의료의 변화와 혁신이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간호계도 뼈를 깎는 혁신으로 새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권위적인 간호의 조직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가 출범했다”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 인정 및 지위 향상”이라는 미션과 관련돼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보여준 살아 있는 증거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사를 한 위성근 국회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은 “따뜻한 제주, 살고 싶은 서귀포에 오신 여러분을 지역 국회의원으로 환영한다”면서 “전국의 의료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간호사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하면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며, 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지위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간호전담부서가 폐지된 지 45년 만에 ‘간호정책 TF’를 새롭게 구성해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비롯해 오늘 대의원총회 결의문에 제시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간호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간호사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건강이 지켜진다고 생각한다”면서 “간호사들의 현장을 대변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면서 “국공립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돼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간호대학 실습교육 예산도 확보돼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하다”면서 “신경림 회장을 중

심으로 대한간호협회가 열심히 뛰고 있고,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강도대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치사를 통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역량을 한층 전문화하고 발전시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해 왔다”면서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의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와 질 향상을 국정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성공하기 위해 역량 있는 간호인력은 핵심적인 필수자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발표와 함께 대책 이행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도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간호사 적정처우 보장을 위해 지난해 4월에 지방중소병원 간호수가 산정 기준, 올해 1월에 시간제 간호사 수가기준을 개선했다”면서 “아간전담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 임무만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지원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여부를 반영하고, 의료 질 평가 시 경력간호사에 제시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간호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1800여개 병원에 배포했다”면서 “올해 아간근무와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도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간호사 존중문화 조성과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2월 1일에는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담당할 ‘간호정책 TF’를 신설해 다양한 간호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반을 마

련했다”고 밝혔다. 개회식에서는 대의원들이 기립한 가운데 일생을 간호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타계한 간호계 영령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간호사 윤리선언’을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장이 낭독했다.

‘건의원’을 통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실현을 위해 간호법 제정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 정규직제로서의 간호전담부서 설치 △간호인력의 노동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3차 성대까지 개편에서 간호수가 별도 신설 △2020년 3월 시행될 의료법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의 자격 기준과 역량을 합당한 업무범위 명시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방문간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와 간호사 중심 전문요양실 설치 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건의문은 광역회 간호협회 제1회회장, 결의문은 박영우 간호협회 당원장 행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올해의 간호인상 수여 복지부장관상 등 시상

대한간호협회는 정기대의원총회를 맞아 지난 한 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간호사들을 포상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일부 시상식은 시도간호사회 총회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상= 이갑녀(동의병원 간호처장) 육복희(영남대병원 간호운영실장) 이은자(가천대 교수) 조미자(광주기독병원 간호부장) 원선경(원광대 산본병원 간호팀장) 송병선(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 지방보건진료주사보) 김순찬(충남 금산군 부리보건진료소장) 김광성(화순전남대병원 간호부장) 신용분(순천향대 구미병원 간호부장) 박미미(아주대병원 간호본부장)

◇갑사패=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조영덕(남주주원인 간호사회회장) 최중홍(전 문화일보 부국장) 윤병기(후생신보 취재부장) 유용상(광주 광산수원미래아동병원장)

◇올해의 간호인상= 최준녀(합춘너스홀링 원장)

◇공로상= 김소선(전 서울시간호사회장) 이영은(전 부산시간호사회장) 박옥선(전 인천시간호사회장) 박인제(전 광주시간호사회장)

류말숙(전 울산시간호사회장) 손혜숙(전 강원도간호사회장) 한명자(전 충북간호사회장) 이순옥(전 충남간호사회장) 신화자(전 전북간호사회장) 이경옥(전 경남간호사회장) 강기선(전 제주도간호사회장) 정계선(전 마취간호사회장) 이준희(전 보건교사회장) 윤영미(전 가정간호사회장)

◇간호정책학술상= 김민지(우수상·연세대 석사과정)

◇제30회 대한간호학술상= 김동연 외 3명(장려상·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박은진 외 1명(장려상·부민병원) 강영옥 외 1명(장려상·충남대병원)

◇제39회 간호문학상= 김이현(소설 가작·동국대 3학년) 이명숙(수기 당선작·보건진료소장 퇴직) 송영관(수기 가작·시카고 일리노이대 간호학 박사과정) 김경옥(시 당선작·동의의료원) 홍정미(시 가작·경북 포항시) 오주훈(수필 가작·서울시) 양세진(수필 가작·전북대 4학년)

◇직원 근속상= 윤덕규(20년 근속·대한간호협회)

◇우수 중앙간호통신단상= 김서영(서울시립동부병원) 김옥선(충남도청) 오경현(서울 구로공동희망학교) 김우영(건국대) 허정인(한국소비자원)

개회식 마지막 순서로 대의원들은 성악가 김신규의 선창에 따라 대한간호협회 회가를 함께 불렀다. 개회식 사회는 송일숙 제주도간호사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개회식에 이어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간호인력 정책의 방향’ 주제로 김 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가 특강을 했다.

#### 올해 사업계획 확정 예산안 심의 통과

개회식에 이어 대한간호협회 임원 및 대의원 336명 중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가 시작됐다. 총회 의사록 공증을 위해 변호사가 배석했다. 총회에서는 먼저 회의를 진행할 의장단을 새로 구성했다. 신인 의장에는 서순립 전 대구시간호사회장, 제1부위원장은 류말숙 전 울산시간호사회장, 제2부위원장은 황순연 부산시간호사회장이 선출됐다.

대의원들은 2018년도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간호협회 중앙회와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에 대한 2018년도 감사결과를 박순화 감사로부터 보고받았다. 이어 대한간호협회 정보기술(IT) 운영진단 및 정보화 개선전략 수립안이 보고됐다.

19일 대의원총회는 오후 6시에 마무리됐으며, 대의원들은 만찬을 함께 하며 화합을 도모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참석해 “간호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배경과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의원총회는 20일 오전 8시 40분에 속개됐다. 대의원들은 2018년도 대한간호협회 사업시행결과 및 결산보고를 받았으며, 이를 통과시켰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과 사무처장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 2019년도 간호협회 사업계획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사업계획은 제8차 장기사업계획(2017~2019년) 7대 목표에 토대를 두고 마련됐다.

장기사업계획은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해 산하단체의 전문성 향상 및 조직체계 확립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 강화 △회원복지 확대 및 홍보체계 강화 △회원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건강한 간호조직문화 정립 △통일시대 대비 간호체계 구축 △한국 간호역사 정립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 7대 목표로 구성됐다.

올해 주요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한다. 간호정책 아카데미 개최를 지원하고, 간호사 정치참여 확대 활동에 힘쓴다. 간호 관련 수가 개선 활동에 주력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제도 개선에 힘쓴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관련 활동,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한다. 간호학 인터넷서점 ‘RNbook’ 활성화에 주력한다. 대한간호협회 제9차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회원들의 고충상담을 위한 통합콜센터 널스톡을 운영하고, 무료 법률 및 노무상담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운영에 주력한다.

SNS 소통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한다. 온라인 ‘KNA 뉴스레터’를 제작 발송한다. 언론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간호사 이미지 향상 활동, 간호사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친다. 간호사



신문을 매주 발간하고, 인터넷/모바일 간호신문을 운영한다.

간호사 보수교육 질 관리에 주력하고,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에 힘쓴다. KNA에듀센터 시스템을 운영한다. 오프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의료인 필수교육, 간호역량강화교육 등을 개발 운영한다. 실습교육 교수 역량강화를 위해 시뮬레이션랩 운영을 추진한다.

간호사 면허신고센터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간호사 국가시험 관련 연구를 추진한다. 전담간호사 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간호학 교과서 및 참고도서,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및 모의고사, 간호사 보수교육 교재 등을 출판한다. 간호학 인터넷서점 ‘RNbook’ 활성화에 주력한다.

행복한 간호현장을 위한 존중간호리더십 프로그램,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직문화 향상 캠페인을 전개한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점을 마련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간호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통일시대 대비 간호체계 관련 연구를 실시한다. 대한간호협회 100년사 발간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한국간호역사자료집’ 제3권 발간 준비작업을 한다.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 개정판 발간을 추진한다.

2019 제외한인간호사대회를 개최한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ICN Congress and CNR 2019에 참가한다.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 및 아시아간호연맹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다.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를 운영한다.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위한 활동을 주력한다.

이 같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경상·신문·출판·교육·널싱라이프 운영·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총 187억7700만원 규모로 확정했다.

회비 조정안 심의에서는 회비 항목 중 2014년도에 도입한 회원복지포인트(2만원)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으며, 2019년도 회비는 인상 없이 동결해 중앙회비 2만5000원 및 지부비 3만3000원을 받기로 했다. 기존에 발생된 회원복지포인트 중 미사용분(71억2300만원)에 대해선 해당 회원들에게 전액 되돌려 주기로 결정했다.

의안심의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정관 전부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정관의 체제와 자구를 일괄 정비했으며, 당원직 이사 선출 권역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조정했다. 대의원총회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20일 오전 11시에 폐회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가 열렸다.